전법 일기

꿈꾸는 대학생 법회 스님도 더 배워간다

대학생 지도법사를 하면서 꿈꾸는 일들이 많아졌다. 대학생들에겐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와 진중한 사유 체계가 이들에게선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교를 대하는 태도가 스님인 나로 하여금 스님의 상을 벗게 만든다.

2024년을 시작하며 대학생 법우들과 해외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종단에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가 있어 도전해보기로 했다. 다행히 주변에 10년 넘게 스리랑카 해외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스님이 계셔서 조언을 구했다. 스님께서는 의료봉사와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같이 봉사를 한다면 더 풍부해지고 좋을 것 같다며 현지 초·중학생 대상으로 학습지원 봉사와 학교 벽화 그리기 봉사를 제안하셨다.

법우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방학을 이용해 해외봉사도 하고 다른 나라의 불교도 경험하면서 현지 대학과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되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여기에 학생들에게 아침 명상과 자자 포살 같은 불교적인 청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다. 법우들이 항공비와 숙박비를 자부담한다 하더라도 체류비와 활동비 등을 모아야 했다. 이 과정이 숙제였는데 생각 외로 법우들이 다양한 모연 방법과 봉사활동 홍보 채널들을 알고 있었다.

기업별, 국가에서 하는 청년 해외봉사기구 KOICA, 특히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는 해외봉사는 후원을 받기 쉽다는 정보 등등…. 처음엔 '공모전에 당선되면'이란 생각에서 시작한 계획이 설사 안 되더라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출가 후 산사에 지내며 20년 넘게 세상과 등지고 살았다. 갑자기 은사스님께서 3년간 하고 싶은 것 해보라는 말씀에 도심지에 월세로 포교당을 시작한 게 소년원 법회와 대학생 법회로 확대됐다. 특히 대학생 법회를 하며 새로운 꿈을 실현하려 애쓰다보니 지금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법 중 하나가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라는 어느 심리학자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 기성세대와는 달리 쉽고 즐겁게 그리고 과감하다. 물론 대학생들에게도 스님이 줄 수 있는 큰 장점도 있다. 위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기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수행자로서의 태도다. 두 상반된 관계가 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낸다.

어느덧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쉽게도 탈락이란다. '으악~~~!!'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이 또한 과정이다.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뿐이지 실패한 게 아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더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 이게 젊음이고 대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 단언한다! 속은 쓰리지만….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시현 스님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③ 현존수업

다만 지금 여기에 살 뿐!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간만큼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마을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안간힘으로 더 멀리 내달렸지만, 아무도 제때 돌아오지 못했다. 한때 어두운 새벽에 별을 보며 출근했다가 캄캄한 저녁에 별을 보며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 집은 오직 씻고 잠을 자는 공간이었으며, 오래 고민하고 산 좋은 오디오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했고 좋은 자전거가 있어도 마음껏 달려보지 못했다.

산이 좋아 산 가까이 이사를 했음에도 등산 한번 하지 못했다. 뭔가 거꾸로 사는 느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된 느낌이 들었다. 음미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삶이란 되돌아오지 못해 다 놓쳐버린 땅처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만 홀로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홀로 이 세상에 소외되는 건 아닐까?', 현대인들의 내면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있는 두려움이다. 이를 '포모 증후군(FOMO Syndrome)'이라고 한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의 앞글자를 딴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이란다.

현대인들은 다들 쓸데없이 바쁘고, 쓸데없이 두렵다. 그리고 바쁨에 대한 보상심리로 무엇을 시켰는지도 모를 택배를 받아내고, 또 그것마저도 바빠서 열어보지 못한다. 이는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실체 없는 두려움의 문제다. 우리는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소진할 뿐,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제 그림자가 두려워 달아나다 끝내 기운이 빠져 죽은 장자에 나오는 사내와 같다. 너른 그늘에 숨어 그림자를 그치게 할 줄 모른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 병리현상 부각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만 해
우리는 현존하는 방법 깨우쳐야 한다
이는 삶, 죽음을 보며 영원이 되는 일

너른 그늘은 '현존(現存)'하는 일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일이다. 그것은 내 삶을 음미하는 일이며 나를 성찰하는 일이다. 그래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득하며,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생의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쉼 없이 흘러갈 뿐이니, 다만 지금 여기에 살 뿐이다.

그래, 모든 과거도 모든 미래도 나의 것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깨끗한 혓바닥처럼 온전한 감각으로 세상을 맛보는 일이며, 다양한 경험들이 나이테처럼 진실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임을 아는 일이다.

그래, 하루하루의 다채로운 감각들을 온전히 맛보며 다음 하루를 설레는 일이다.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삶을 아는 일이며,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죽음을 아는 일이다. 그래 삶과 죽음 모두를 보며 무시무종의 영원이 되는 일이다. '영원'이 믿는 자의 것임을 아는 일이다.

해마다 현존수업을 한다. 죽음을 떠올리며 자신의 가장 진실한 가치를 찾아내고, 접촉하고 있는 신체 감각 느낌의 호오(好惡)를 알아차리며 떠도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다 논다. 가득 찬 물컵을 흘리지 않게 서로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마음이 '의도·주의·집중'으로 환해지는 현존체험을 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또 무엇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본분사를 찾는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이들과 함께 할 나의 현존수업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대학생 불자들의 '특별한' 수행정진

최근 대학생 불자들이 함께 수행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특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생겼다고 해 우연히 눈팅(게시물을 읽기만 하는 것)의 기회를 얻었다.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운영하는 '대불련 수행정진의 방'이다.

이 방은 마음을 낸 이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나름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참가자들은 출가재일인 3월 17일부터 열반재일인 24일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일주일간 수행한다. 반야심경 사경, 108배 등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매일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 수행과정과 소감은 사진, 영상, 글 등을 통해 인증한다. 함께 수행하는 법우들을 위한 응원과 공감도 필수다. 현재 55명의 대학생 불자가 참여, 수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조용하던 채팅방은 저녁 시간이 되자 활기를 띄었다. 감사일기, 명상, 절수행 등 다양한 수행과정이 소개됐고, 그 속엔 하루 동안 느낀 감사함이 담백하게 녹아있었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서 등 일상에도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감사함'을 체득하기 위해 마음을 훈련하는 이들에게는 세상도 정말 그렇게 보이나 보다. 소감으로 "오늘 참 여러모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108배를 하게 됐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지만 108배 후반부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했다"는 한 학생처럼 '절'마저도 감사한 일이 됐다. 채팅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수행을 시작하는 계기로, 또 누군가에게는 법우들과 소통하며 위로받고, 몸과 마음을 성장하는 곳으로 충분해 보였다.

싯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서 45년 설법 이후 열반에 들 때까지. 탐진치에 흔들리지 않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부처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서기 위한 대학생 불자들의 노력이 더욱 값지다. 이들이 만들어갈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움직이지 않는 팔보다
고향가족 먼저 떠올라"

스리랑카 드라하 씨, 골절 · 근육파열 부상
치료비 · 고향 부모님 생계 걱정에 눈물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